


---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  
**ESG 경영과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

---

- ◆ 일시 : 2021년 12월 17일 (금), 14:00~18:30
- ◆ 참여 :  zoom
- ◆ 주최 : 한국사회적질학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 하반기 학술대회

# ESG 경영과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

학술대회 /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 총회

**일시** | 2021년 12월 17일 (금) 오후 2시

**장소** |  zoom 웨비나

**주최** | 한국사회적질학회



#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

[세부일정]

▶ 일시 : 2021년 12월 17일 (금), 14:00~18:30

▶ 참여 :  zoom

## 제1부 학술대회 | ESG 경영과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 [14:00-16:50]

• 좌장 : 박보영 (극동대학교)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인사말	• 엄재근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14:10~14:20	휴 식	
14:20~14:50	주제발표 1	<b>ESG 경영과 사회적 질 발전을 위한 융합연구</b> • 발표 : 엄재근 (KC대학교) • 토론 : 양운모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14:50~15:00	휴 식	
15:00~15:30	주제발표 2	<b>ESG와 진성 자본주의</b> • 발표 : 탁진규 (명지전문대학) • 토론 : 박범기 (한독교육복지연구원)
15:30~15:40	휴 식	
15:40~16:10	자유발표	<b>OTT 드라마 &lt;오징어게임&gt;을 통해 본 한국 대중문화의 질적 변화</b> • 발표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학교) • 토론 : 조민식 (서정대학교)
16:10~16:20	휴 식	
16:20~16:5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 엄재근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6:50-17:40]

• 진행 : 박보영 (한국사회적질학회 연구윤리위원장 겸 편집위원장)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 제3부 총회 [17:40-18:30]

• 의장 : 엄재근(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 사회 : 박범기(한국사회적질학회 총무위원장)

1. 성원보고\_총무위원장 박범기
2. 제7차 총회 개회선언\_의장 엄재근
3. 의장 인사말\_의장 엄재근
4. 학회활동 보고\_총무위원장 박범기
5. 안건 심의 및 의결\_의장 엄재근 / 총무위원장 박범기
  - 제1호 안건 : 한국연구재단 2021 학술지평가사업 결과 보고
  - 제2호 안건 : 2021년 결산보고
  - 제3호 안건 : 2022년 예산보고
  - 제4호 안건 : 기타
6. 기타 안건 토의\_의장 엄재근
7. 폐회선언\_의장 엄재근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목 차 ]

###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

#### 제1부 학술대회 | ESG 경영과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

##### □ 주제발표 1

ESG 경영과 사회적 질 발전을 위한 융합연구 ..... 7

▶ 발표 : 엄재근 (KC대학교)

▶ 토론 : 양윤모 (극동대학교)

##### □ 주제발표 2

ESG와 진성 자본주의 ..... 21

▶ 발표 : 탁진규 (명지전문대학)

▶ 토론 : 박범기 (한독교육복지연구원)

##### □ 자유발표

OTT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통해 본 한국 대중문화의 질적 변화 ..... 37

▶ 발표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학교)

▶ 토론 : 조민식 (서정대학교)

---

####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 51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 55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 57





제1부 학술대회

---

논문발표

## ESG 경영과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

[주제발표 1]

ESG 경영과 사회적 질 발전을 위한 융합연구

- 엄재근 (KC대학교)

[주제발표 2]

ESG와 진성 자본주의

- 탁진규 (명지전문대학)

[자유발표]

OTT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통해 본 한국 대중문화의 질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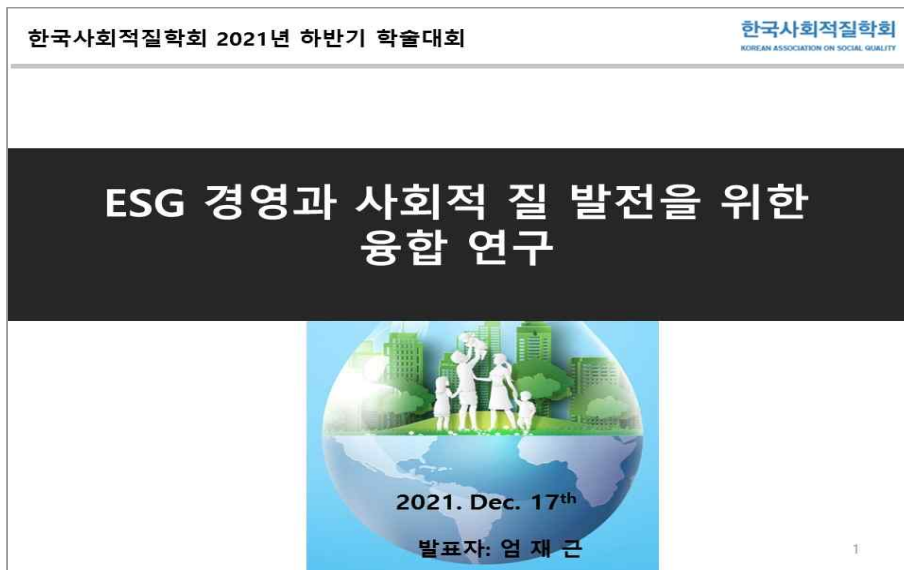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학교)



## ESG 경영과 사회적 질 발전을 위한 융합연구


엄재근

(KC대학교 G2글로벌경영학과 겸임교수)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 ESG 평가등급과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백상미, 최정미, 한국국제회계학회, 2021)
- ▶ 패션 브랜드의 ESG 실천 사례에 관한 연구(허가영, 인문사회 21, 2021)
- ▶ ESG 성과와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소유구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최정혁, 여성경제연구, 2021)
-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ESG 이슈 분석(임효진, 인문사회 21, 2021)
- ▶ 사회적 경제 조직구성원이 지각한 ESG요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문준, 이창호, 혁신기업연구, 2021)
- ▶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9개 기업의 사례를 분석(엄재근, 조규연, 탁진규, 2017)
- ▶ 창업자의 창업실패 모형을 대한 탐색적 연구: 시스템 사고에 의한 접근(엄재근, 김희춘, 한국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2017)
- ▶ 기업의 Big Bath 분석에 대한 시스템사고에 의한 접근(엄재근, 권경현, 김희춘, 한국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2017)
- ▶ 유한양행 사례를 통한 사회적 책임정신에 관한 연구: SPICE 모형을 중심으로(엄재근, 사회적질 연구 2018)
- ▶ 역사를 통해 본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정신 :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례를 중심으로 (엄재근, 사회적질연구, 2017)



### ESG 용어의 공식 등장


ESG란 용어의 공식 등장은 사실 10년도 넘었다. 코피아난 UN사무총장 시절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의 주도로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서다. UNPRI는 2006년 전 세계 기관투자자 그룹들에 '책임투자를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1. ESG 문제를 투자 분석 및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적용한다.
2. 적극적인 소유자가 되어 ESG 문제를 소유권 정책 및 관행에 반영한다.
3. 투자하는 주체가 ESG 문제에 대해 적절한 공개를 하도록 촉구한다.
4. 투자 산업 내에서 원칙의 수용과 실행을 촉진한다.
5. 원칙을 실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
6. 원칙 실행을 향한 활동과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등이다.


SG를 제도화한 각종 국제 활동조직도 활발하다.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E),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S), 투명한 지배구조(G)를 ESG 경영으로 정의할 때 기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15년)와 ISO26000(2010년), 지속가능보고서 기준인 GRI(2016년 제시)등이 이미 구체적인 ESG 실행지침을 세세히 제시하고 있다.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새롭지 않다.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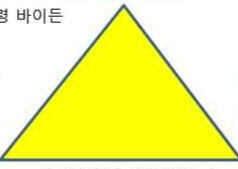


### ESG에 주목되는 3인


2021년 1월 취임  
파리기후변화 협약 복귀 서명  
넷제로 선언, 환경 인프라에 2조 달러



미국대통령 바이든



블레이크-래리핑크  
넷제로 대담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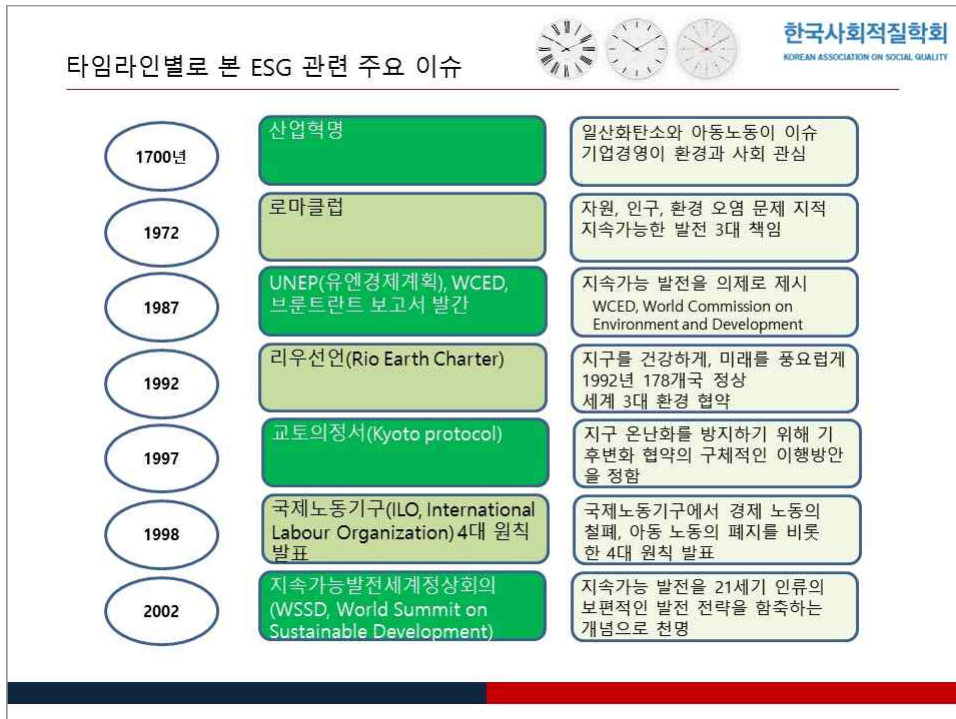


MS 창업자 빌게이츠


2020년 연초서한에서 ESG 의지  
넷제로 선언, ESG 투자규모 확대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TCFD, SASB 기준 보고서 작성  
ESG 경영 실천않는 경영진 반대


2020년 5월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책  
출간  
넷제로 선언, 탄소제로 실천안 제시

이종재, 종합경영리뷰 2021년 7월호  
Copyrights© 2021 by Ph.D. Jaegun Eom



###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

구속력, 의무  
감축의무: 주로 선진국(유럽연합, 일본 등)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1차 5% 이상, 2차 18% 감축

만약 의무감축량에 미달할 경우 미감축량의 1.3배를 향후 체결되는 협정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 EU 국가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1t당 40유로의 벌금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도(ET) ▷청정개발체제(CDM) 등

ET를 통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이는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들끼리, CDM은 감축 의무가 있는 없는 모든 국가 간에 거래

**파리기후변화협약 (Paris Climate Change Accord, 2015)**

지구 온난화 억제 2도 이내에서 1.5도 목표 달성 노력


모든 당사국(195개국)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 이전, 역량배아, 투명성 등을 포괄

▷장기목표 ▷감축 ▷시장 메커니즘 도입  
▷적응 ▷ 이행점검 ▷재원 ▷기술 등

국가	감축 목표
중국	2005년 1인당GDP 대비 60~65%
미국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2025년까지)
EU(28개국)	1990년 배출량 대비 40%
인도	2005년 1인당 GDP 대비 33~35%
러시아	1990년 배출량 대비 25~30%
일본	2013년 배출량 대비 26%
캐나다	2005년 배출량 대비 30%
멕시코	2030년 배출전월치 대비 25~40%
한국	2030년 배출전월치 대비 37%

### 2021.12.1 산업부는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



□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 등\*의 3,000여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61개 ESG 이행과 평가의 핵심. 공통사항을 마련하고,  
\* 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WEF, GRI 등


○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주요 경제단체, 연기금, 금융·투자기관, 평가기관, 신용평가사·언론사 등 5차례 간담회 및 대한상의 포럼, 경총 ESG 위원회 등 참석


□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K-ESG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1~2년 주기로 발간하고 업종별, 기업 규모별 가이드라인도 22년부터 마련할 계획임

〈K-ESG 가이드라인 구성〉

구분	주요 항목
정보공시(5)	• ESG 정보공시 방식·주기·범위 등
환경(17)	•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
사회(22)	• 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재해, 법규위반 등 • 채용·경규제, 산업안전, 다양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지배구조(17)	•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등 •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Copyrights© 2021 by Ph.D. Jaegun Eom




## 멜서스의 인구론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1798년 영국**


식량은 산술(등차)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인구는 기하(등비)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자연대라하면 과잉인구로 인한 식량부족은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빈곤과 최악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




1차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



시기	세계 인구	특이사항	연도	기원년	1000년	1500년	1600년	1700년	1820년	1900년	1940년
BC 4000년	700만명	농경문화	미국						980	7,500	15,000
BC 2000년	2,000만명	4대문명	일본	300	800	1,800	2,200	2,800	3,300	4,300	8,000
BC 1000년	5,000만명	철기문명	중국	5,900	5,900	10,300	16,000	13,800	38,100	40,000	55,000
BC 500년	1억명	그리스, 춘추전국시대	인도	7,500	7,500	11,000	13,500	16,500	20,900	33,000	
기원년	2억명	로마, 한나라	영국			380	560		1,040	3,300	3,800
서기1000년	3억명	봉건중세시대, 송나라	프랑스			1,600	1,800	2,100	3,300	3,800	5,000
서기1500년	5억명	열병기 보급, 신대륙 발견	독일			1,600	2,000	1,500	2,700	5,600	6,500
서기1800년	10억명	산업혁명, 식민지 팽창	러시아				1,400	1,400	4,000	7,100	13,000
서기1900년	17억명	2차 산업혁명	한국	160	390	800	1,000	1,200	1,400	1,700	3,600
<b>세계</b>				<b>1.7억</b>	<b>1.8억</b>	<b>2.8억</b>	<b>3.8억</b>	<b>4억</b>	<b>7.1억</b>	<b>17억</b>	<b>25억</b>



## 온실가스와 탄소세



온실가스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반사할 수 있는 기체를 말한다. 주된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다. 온실가스는 두 가지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분자로 잔류수명이 길어 온실효과에 영향을 준다. 지구 공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등이 주된 성분이고 이산화탄소는 1% 미만으로 존재하지만 지구 온도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크다. 온실가스는 지구환경 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산업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는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와 같은 온실가스효과를 초래하며,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인류 생존에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탄산가스의 방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뜻에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네덜란드(1990년 2월), 노르웨이(1991년 1월), 스웨덴(1991년 1월), 덴마크(1992년 5월)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2020년 1월 14일 EU 집행위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EU를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유럽 대륙의 순탄소배출량(배출량 감축량)을 제로(0)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석유화학,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유럽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 상실을 우려해왔다.

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20년 1월 22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에서 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연설에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세계 시장에서 기후대책에 미온적인 국가에 손해 보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17년 기준으로 탄소배출 1위 국가는 중국이다. 세계 배출량의 27%가량을 차지한다. 이어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한국 순이다. 미국과 인도의 비중도 각각 14%대와 6%대에 달한다.

환경 경제용어사전

인류에게 던지는 문제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인류의 3대 문제

엄청난 규모의 환경 파괴, 경제적 불평등, 제도의 붕괴

근대 산업화를 이끈 화석연료는

지구의 기후가 불안정해지고 바다가 산성화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원인

세계의 표준트는 황폐되고, 민물의 수요는 공급을 앞서고 있음

해양 도시들은 물에 잠기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이주하고, 곤충개체 수는 급격하게 감소, 폭염, 자연 재해 등에 고통

시장 실패 원인 1: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원인 2: 평등한 기회의 파괴

시장 실패 원인 3: 기업이 만드는 게임의 규칙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고 결과에 대해서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가 의지하는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서 시스템 사고가 필요

리베카 월먼슨, 하버드 ESG 경영수업 자본주의 대전환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 방목장에서 농부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소를 끌고 나오는 것이 이득이므로 그 결과 방목장은 곧 황폐화되고 만다는 걸 경고하는 개념이다.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포식자가 너무 많이 존재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특히 그 자원이 공유 자원이면 더욱 그렇다. 생물학자인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은 1968년 <사이언스(Science)>에 실린 그의 논문에서 공유지의 희귀한 공유 자원은 어떤 공동의 강제적 규칙이 없다면 많은 이들의 무임승차 때문에 결국 파괴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이론'이다.

"파멸은 모든 인간이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다. 공유 자원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할 때 도달하는 곳이 바로 이 파멸인 것이다. 이처럼 공유 자원에서 보장되는 자유는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

생태학자인 레이철 카슨이 1962년 발간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다. <침묵의 봄>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DDT를 남용하고 있고, 이 결과로 본래 의도했던 잡초나 병충해의 제거 수준을 넘어서 모든 곤충과 나아가 조류와 동물들까지 모두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봄이 와도 아무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상황'을 우화로 묘사하고 이것이 우려만이 아니라란 것을 실측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현대의 환경운동과 환경윤리학의 시초가 된 책으로,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역시 이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하딘의 경우는 '개인의 이기심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라는 구조를 '개인들의 이기심과 그에 따른 경쟁적 환경파괴'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써, 개인의 문제에서 '개인간의 경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부각시킨 것.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 법칙 101, 2011. 2. 28. 김민주



##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

###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1972년 로마클럽의 경제학자 및 기업인들이 경제성장이 환경오염·자원고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1968년 로마클럽이 결성된 뒤, 1972년 이 클럽의 경제학자들과 기업인들이 경제성장과학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발표한 보고서이다. 이들은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책)로 발간하였는데, 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다. 이후 <성서> <자본론> <중의 기원> 등과 함께 세계를 뒤흔든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오늘날까지 환경문제에 관한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로마클럽 보고서는 세계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관련된 비판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 크게 다섯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인구** 문제로서, 인구는 계속해서 연 2.1%로 증가하는 데 반해 식량 산출량은 인구증가를 따라잡지 못한다.

**둘째 공업생산**은 연 5%씩 증가하는데, **자본재**가 없어지는 속도는 공업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셋째 식량 수요**의 지수적 성장은 인구증가의 직접적 결과이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땅이 활용된다 하더라도 결국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 생산은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넷째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 속도는 인구나 공업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해 마침내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인구와 공업 활동의 영향을 받아 갈수록 지구의 환경오염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지구 용량의 한계’가 있다는 개념과 ‘지속 가능한 세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이 책이 출간된 뒤 1987년 유엔 브룬트란트 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제시**했고, **하나라도 지구의 지나친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의 환경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에서 이 책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 ESG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시스템 사고

---









##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이해를 위해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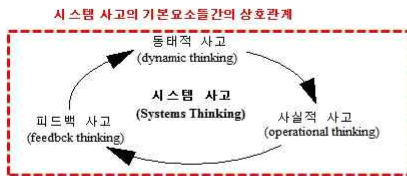


“산업동태론은 산업시스템들의 행태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정책과 의사결정과 구조 그리고 시간지연 등이 어떻게 상호연결되어 시스템의 성장과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산업동태론은 시스템에 동태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정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Forrester 1961,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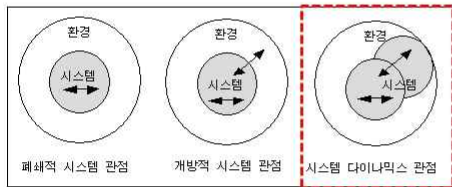
- Jay Forrester는 공학자로서 15년간 MIT에서 공군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음.
- 1956년 MIT Sloan School에 합류. General Electric의 켄터키 가전공장의 불안정한 가동률에 대해서 처음으로 종이에 연필로 시뮬레이션 수행.
- 1958년 Harvard Business Review에 “Industrial Dynamics-A Major Breakthrough for Decision Makers” 라는 논문 발표. 이때 Dick Bennett가 Dynamo의 전신인 SIMPLE(Simulation of Industrial Management Problems with Lots of Equations)을 만들. 이후 Jack Pugh가 DYNAMO를 만들.
- 1968년 보스톤시의 전 시장 John F. Collins가 Forrester 연구실 옆 방에 오게 되어, 토론을 벌이면서 결국 Urban Dynamics로 발전함. Urban Dynamics는 많은 토론을 불러왔으며, 흑인들의 적개심을 사기도 하였음. 그러나 Urban Dynamics로 인하여 World Dynamics나 Limits to Growth, National Model등에 관한 프로젝트가 성사되었으며, System Dynamics는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음.



시스템다이내믹스\_김도훈,문태훈,김동환 저



시스템다이내믹스 접근에서의 시스템과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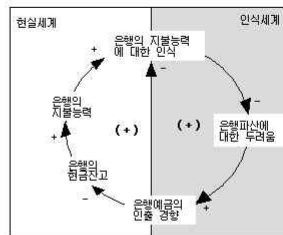


피드백 루프의 원형에 사용될 아이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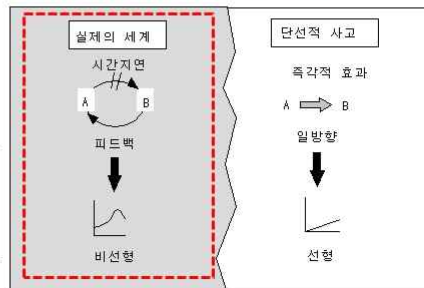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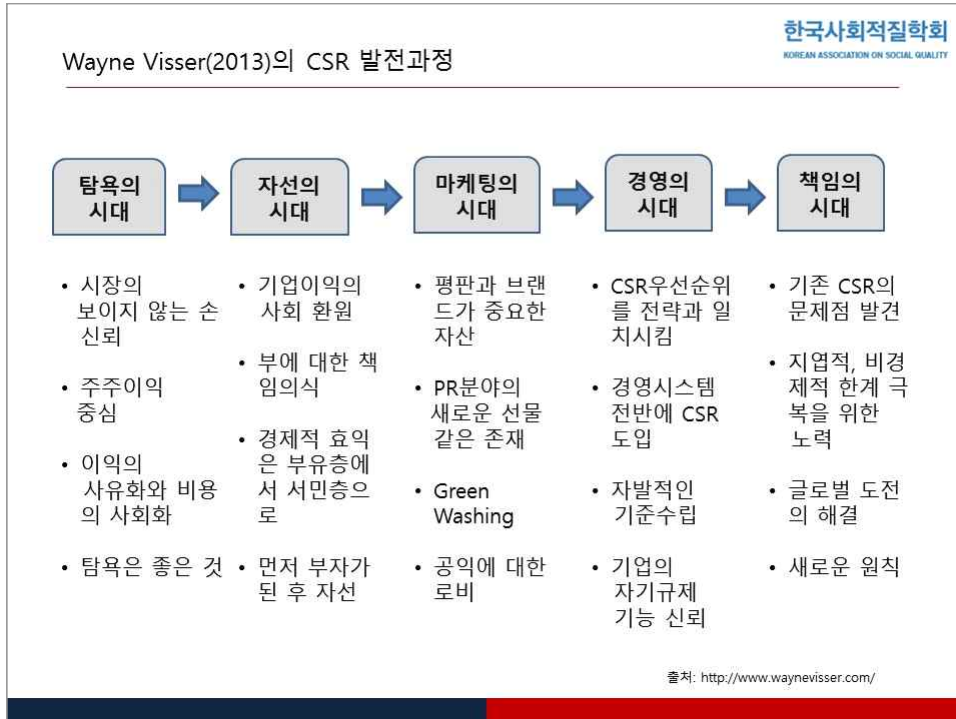
시스템다이내믹스\_김도훈,문태훈,김동환 저

### 은행파산에 대한 자기예언적 실현



### 실제의 세계와 단선적 사고의 격차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 ESG 경영에 대한 대두와 융합의 현장

	CSR	CSV	SV	ESG
논의시점	1953	2011	2017	2020
주장 및 확산 계기	Helslin&Ochoa	Michael Porter	정부	블랙록 래리핑크
주문내용과 기대(기업성격)	소외계층과 사회문제해결(선한기업)	사회와기업의 공유가치창출	사회적 가치를 경영에 반영	투자대상으로의 지속성(건강한기업)
기업의 조직명칭	사회공헌부	CSV팀	사회가치 구현실	ESG 대응팀

이종재, 융합경영리뷰 2021년 4월호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 Carrol의 CSR 피라미드

The diagram is a pyramid divided into four horizontal layers, each with a corresponding label on the left and a description on the right:

- 자선적 책임 (Discretionary Responsibility):** 사회 개량을 위한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
- 윤리적 책임 (Ethical Responsibility):** 사회가 적절한 행동 규범으로 규정한 도덕적 규율을 준수
- 법률적 책임 (Legal Responsibility):** 법률적 규제의 범위에서 경제적 사명을 성취하는 책임
- 경제적 책임 (Economic Responsibility):** 경제적 부를 유지하며 소비용구를 충족시키는 기업의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의 목표는 가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정책이나 원칙에 따라 의 사결정을 하며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기업인의 의무”

Bowen(1953) 최초 CSR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리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 기업에 대한 시장의 요구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을 늘려 지구를 보호하고, 근로자와 투자자 고객은 물론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그리고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라는 시장의 요구’**

이를 위해 세계적인 관련 기구의 규정을 따르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시장에 분명하게 알리고(공시) 스스로 정리해 공개(지속가능보고서)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투자기관들은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은행들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고, 주주총회 등에서 경영진 반대투표를 던지겠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경고까지 검하고 있다.

블랙록, 스테이트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SSGA) 등 ESG 투자를 늘리고 SASB, TCFD 공시 정보 요구

리서치 기관 상장기업 ESG정보 수집, 보고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가 비재무공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G20 국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의 협의체 Financial Stability Board,FSB가 기업들의 기후 관련 전략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2015년 만든 협의체

**감사합니다.**



[토론문]

## 「ESG 경영과 사회적 질 발전을 위한 융합연구」에 대한 토론

양윤모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엄재근 선생님의 「ESG 경영과 사회적 질 발전을 위한 융합연구」 발표 잘 들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주어진 화두가 ESG인데, 발표를 통해 ESG의 개념과 장점 등 ESG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1.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CSR이 아직 사회에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ESG라는 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자꾸 용어만 바뀌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CSV라는 말도 아직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가 새로운 대안 혹은 지속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방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사회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ESG라는 범위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혹은 ESG 범위 밖에 있는 이슈들은 소외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위한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회 복지 차원에서 ESG 경영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 사회적 질의 개선을 위해 어떤 부분을 더 고민해야 하는가?

ESG 경영이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과연 사회적 질이라는 부분을 위해 ESG 경영을 실행해갈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ESG 경영이 기업의 소비자, 더 나아가 인류의 사회적 질의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지, 즉 어떻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SG와 진성 자본주의

탁진규

(명지전문대학 교양학과 교수)

### ESG와 진성 자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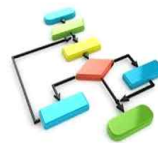
2021. 12. 17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발표자: 탁진규 교수(명지전문대)

#### Contents

1. ESG 시장의 이슈
  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3. ESG 경영 실천과제
  4. ESG와 진정성
- \* 참고문헌



### ESG 개념과 관리항목

### 1. ESG 시장의 이슈

**투자 대상 선정 시,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투자하겠다는 움직임  
(투자수익 극대화)**

➤


[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			
구분	주요 항목		
정보공시 (5개 문항)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ESG 핵심 이슈 및 KPI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17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 수립	환경경영 추진체계	편부차재 사용량
	재생 편부차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Scope2)	온실가스 배출영(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법/규제 위반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사회 (22개 문항)	목표 수립 및 공시	신규 채용	장규직 비율
	차별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결사의 자유 보장	역성 구성원 비율	역성 급여 비율 (평균근로액 대비)
	장여인 고용률	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인권정책 수립	안전 리스크 평가	합격사 ESG 경영
	합격사 ESG 지원	합격사 ESG 협약사항	전략적 사회공헌
구상권 행사 참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회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17개 문항)	이사회 내 ESG 민간 성향	사외이사 비율	ESG(사회·환경) 영향 평가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 이사 출석률
	사내 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민간 지리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집중할 이해 권리	집중/산차/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규범 위반사실 공시	내부 감사부서 설치	
장기투자 전문성 (공시규 내 ESG/대중 전문성)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4개 영역 중 61개 진단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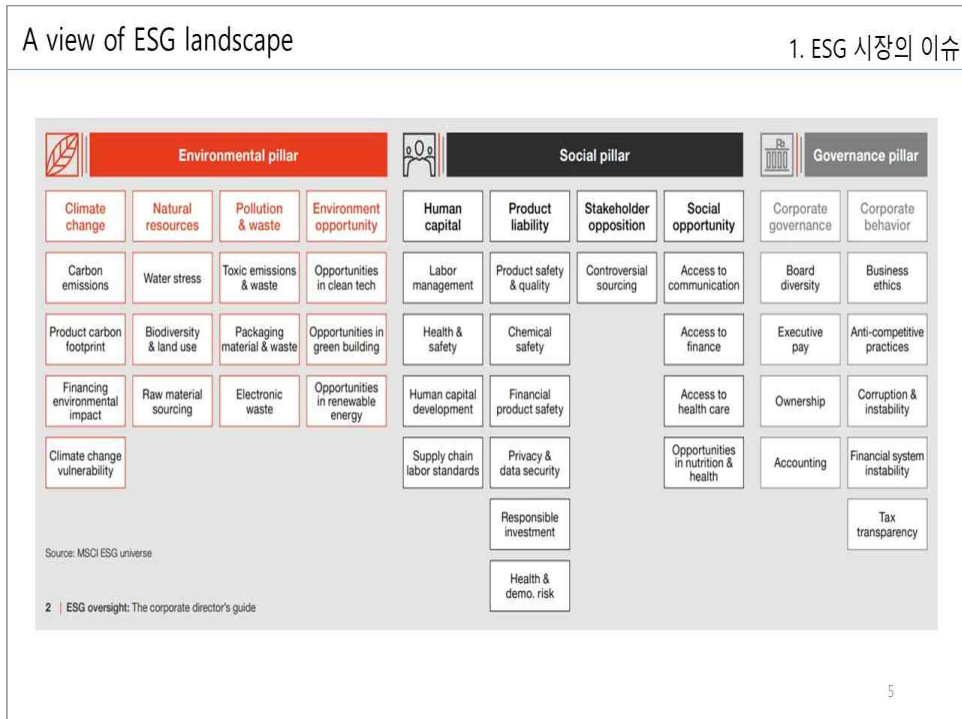
Source: K-ESG 가이드라인(2021.12.1), 산업통상자원부

### ESG 시장 이슈와 정책 방향

### 1. ESG 시장의 이슈

- COVID-19 팬데믹이 ESG 증폭의 도화선
- ESG 주도권을 잡은 금융·투자업계
- ESG 못하는 기업에 투자금 회수(이기적인 자본주의)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부상
- 탄소중립(Net-Zero)은 기업과 국가의 당면과제
- ESG의 성패는 CEO의 결단과 구성원 참여: ESG 경영 선포





### ESG와 경영 시스템의 변화

1. ESG 시장의 이슈

**<업종별 핵심 ESG 이슈> \***

- 화학: 플라스틱 이슈
- IT: 친환경 데이터센터
- 운송/물류: 공기 오염물질 관리
- 제조업: 절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 금융업: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투자기업 선정
- 반도체: 물(폐수) 관리
- 식품/호텔: 식품 폐기물 관리

Source: ESG K-기업 서바이블 플랜, 한국경제신문

### 자본주의 유형

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Types of Capitalism	국가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Key Stakeholder	<b>Government</b>	<b>Company Shareholders</b>	<b>All stakeholders matter equally</b>
Key Characteristic	<b>Government steers the economy, can intervene where necessary</b>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business</b> is to increase its profits	<b>Society's</b> goal is increase the well-being of people and the planet
Implication for Companies	Business interests are <b>subsidiary</b> to state interests	<b>Short-term profit maximization</b> as highest good	Focus on <b>long-term value creation</b> and ESG measures
Advocated by		<b>Milton Friedman ('70)</b> «Shareholder Theory»	<b>Klaus Schwab ('71)</b> «Davos Manifesto» ('73)

Visualisation by Peter Vanham, World Economic Forum, based on «Stakeholder Capitalism: A Global Economy that Works for Progress, People and Planet»



▪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 “The business of business is business (기업이 하는 일은 돈을 버는 것이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윤·주주’ 중심의 기업 경영 옹호



▪ **애드워드 프리먼 (R. Edward Freeman)**

- 기업은 그것을 구성하는 활동들 안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 사이의 관계들의 체계로 이해
- 기업은 고객, 근로자, 투자자(주주, 채권자, 은행 등), 유관단체, 그리고 경영자가 상호작용하며 가치를 창조하는 방식과 관련
- 기업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

Source: Capitalism and freedom(1962), Managing for Stakeholder(2009)

▪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공동결정제도

- 독일과 스웨덴 등은 기업과 은행이 주식을 상호 소유하여 견제와 균형이 가능
- 정부는 감독과 규제를 통해 은행을 움직이고, 기업이 단기 수익 극대화보다 환경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은행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여 투자를 진행함
-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여 경영자·노동자의 공동결정(co-determination) 제도를 만들

▪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선언

- 미국의 200대 대기업 협의체
- 2019년 8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성명 발표
- ‘회사는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 삭제

美 CEO 181명이 서명한 성명서 주요 내용

- ❶ 기업 결정은 더 이상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돼
- ❷ 기업은 고객, 직원, 납품업체, 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고려해야
- ❸ 기업은 이해당사자를 위한 근본적 책무를 공유하고 가치를 창출해야
- ❹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보상·교육 등 직원 투자를 강화해야
- ❺ 공정하게 납품업체를 대하고,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해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등장

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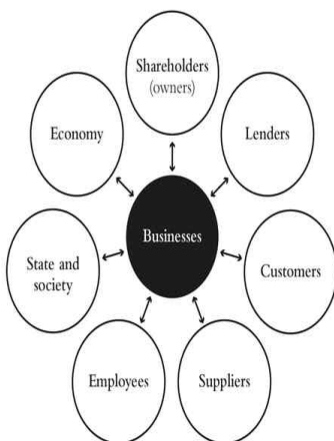
  - 2008년 금융회사의 비 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장기 저성장 초래, 시장이 이를 바로잡지도 못함
  - 거대 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살아남음**
  - 제조업 등의 침체로 대다수 국민은 먹고살 길이 막막 해졌으며 이로 인해 거대 기업에 대한 반감이 커짐. 이러한 국민감정은 기업에 대한 규제와 세금 인상 요구로 이어졌고 이에 **미 재계의 선제적·능동적 대응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이 나오게 됨
- 다보스 포럼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언급

  - 2020년 1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언과 함께 기업의 보편적 원칙으로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다보스포럼에서 언급됨
  - '주주 자본주의' 패러다임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11

ESG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ESG는 기업 경영진이 주주 외에도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영 방식
- 회사에 재무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평판이 높아진다고 생각
- ESG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챙기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에 부합

12

이해관계자 유형		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b>이해관계자</b>	<b>정의</b>	
지역사회(Society)	전국 혹은 지역사회, 정부조직, 사회단체. 비정부 기구(NGO) 등	
협력업체 (Partners)	원자재 공급업체, 소비업체 등 협력업체	
투자자 (Investors)	개인 혹은 기관 투자자	
소비자(Customers)	현재 미래, 과거의 개인 소비자 혹은 소비업체	
종업원(Employees)	현재, 미래, 과거의 종업원과 그 가족	
환경(Environment)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고 받은 자연생태 환경	

Source: 책임경영학 원론, 경희대학교 책임경영교육위원회

13

MZ세대, 가치소비 이해관계자	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b>환경, 사회에 미치는 임팩트</b>에 따라 그 회사에서 일할 지 여부 결정</li> <li>▪ <b>환경, 사회적 이슈</b>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기업의 상품 구매</li> <li>▪ 실제 구매를 할 때 <b>ESG 이슈</b> 고려</li> <li>▪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맞는 <b>미닝아웃</b> 소비 (친환경, 비건 등)</li> </ul>	

14

ESG 경영 실천과제\_정부 3. ESG 경영 실천과제

<b>환경 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도시 전환</li> <li>✓ 재생에너지 확대 및 ESG 기업 적극 유치</li> <li>✓ 환경 규제, 탄소배출 제한 등 기업 환경 책임 강화</li> </ul>
<b>사회 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환경 관련 정책 시행 및 규제 강화</li> <li>✓ 근로환경 및 고용관계 개선</li> <li>✓ 사회공헌 적극 이행</li> </ul>
<b>지배구조 G</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이해를 반영한 민주적 의사결정</li> <li>✓ 공정한 성과 배분, 뇌물/부패 방지</li> <li>✓ 시민단체 및 미디어 감시 기능 강화</li> </ul>

15

ESG 경영 실천과제\_기업 3. ESG 경영 실천과제

-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 가치/비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경영진의 역할이며 목표
- 단기적 이윤을 포기해서라도 **장기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
-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ESG를 위한 노력에 대해 관심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
- **이해관계자들** 또한 ESG와 가치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예: 고객, 직원, 커뮤니티, 공급업체, MZ세대 등)
- **평가 지표화 및 정보 투명성** 요구 (예: K-ESG)

16



ESG 경영 실천과제\_시민 3. ESG 경영 실천과제

- **감시인(watchdog) 역할**
  - 기후변화로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미래세대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사회의 역할 중요**
- **생활 속 에너지 소비 줄이기 실천**
  - 가정에 대기 전력을 줄이면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5%를 줄일 수 있음
  - 시민도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음(예: 미니 태양광 설치하여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돌릴 수 있음)
- **투표 적극 참여**
  - 정치인들은 넷 제로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철학이 있어야 함
  -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 **ESG를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도록** 해야 함

17

ESG 워싱 방지 4. ESG와 진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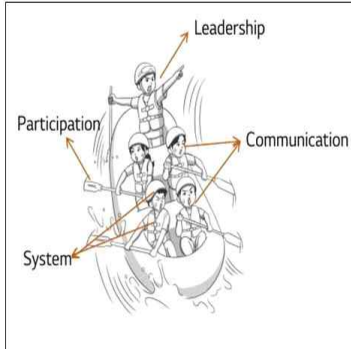
- ESG 워싱: ESG 경영을 **‘하는 척’**만 하는 현상
- 따뜻한 경영으로 보이는 ESG 경영은 가혹하리 만큼 냉정하게 돈의 흐름을 쫓는 **자본시장에서 비롯**
- ESG 관점에서는 투자자의 손실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의 신뢰 상실 및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CSR 워싱과 차이**)

CSR
책임 (Responsibility)
대응적
담당 부서의 업무

VS

ESG
기업가치 (Value)
전략적
전사적 업무 반영

18

ESG 워싱 방지	4. ESG와 진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실(fact)에 기반하지</b> 않은 마케팅 차원으로 ESG를 대한다면 기업경영에서 매우 큰 리스크 요소가 될 수 있음</li> <li>▪ <b>'ESG Watch'</b> 같은 독립적 기구를 통해 ESG 집행의 적정성을 감시함</li> <li>▪ ESG 경영의 관건은 <b>'진정성'</b></li> <li>▪ 기업 내·외부와 <b>투명한 소통</b>을 끊임없이 해야 함</li> </ul>
19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 경영의 이해(김현식, 경영지도사, 2021)</li> <li>▪ ESG 경영지표(탁진규, 융합경영리뷰, 2021)</li> <li>▪ ESG와 진성 자본주의(탁진규, 융합경영리뷰, 2021)</li> <li>▪ ESG K-기업 서바이블 플랜(한국경제신문, 2021)</li> <li>▪ K-ESG 가이드라인(산업통상자원부, 2021)</li> <li>▪ Capitalism and freedom(Milton Freedma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li> <li>▪ Managing for Stakeholder(R. E. Freeman,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56-68, 2009)</li> <li>▪ MSCI ESG universe</li> <li>▪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ESG 의미와 실천과제(심보균, 유엔거버넌스 센터, 2021)</li> <li>▪ 책임경영학 원론(경희대학교 책임경영교육위원회)</li> </ul>
20	

**감사합니다.**



[토론문]

## 「ESG와 진성 자본주의」에 대한 토론

박범기

(한독교육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 1.

본 발제문의 대상인 ESG 경영에 대한 연구를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ESG는 단순한 트렌드라기보다 새로운 전지구적 방향성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근거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UN의 새천년 프로젝트(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경영학적 관점에서 실천되는 것이 ESG라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료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특히 ESG 경영은 본 발제문에서 언급한 코로나19의 영향 및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부상이 주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적 배경들을 고찰해보면 1952년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레이트 스모그 현상이나 1990년 한국 두산전자의 낙동강 폐놀 무단방류 사건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나 한국에서 ESG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되었습니다. 기업이 ESG 경영을 하지 않을 때 사회구성원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자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발제문에서 기술한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해 현재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는 폭염, 산불, 지진, 가뭄, 홍수 등의 기후재앙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전 지구적 위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구의 환경위기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ESG 관점을 취해야 하는 당위성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한편, 자본주의의 초석이 되는 아담 스미스의 인간관과 경제관이 틀릴 수 있다는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데이터와 경험치가 쌓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 이고 사익의 추구는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로 연결된다” 는 경제학적 관점은 사회적 불평등 및 지구적 환경 위협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익에만 치중하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도외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본주의 초기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즉 GDP로 상징되는 경제성장의 지표가 늘어나지만 그 열매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불평등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소득, 교육기회, 주거, 식량, 보건, 에너지 등의 불평등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자각으로 기업이 사회 구성원들을 생각하는 경영을 하고 과거처럼 전통적 주주 중심의 단기적 이윤극대화를 지양하는 움직임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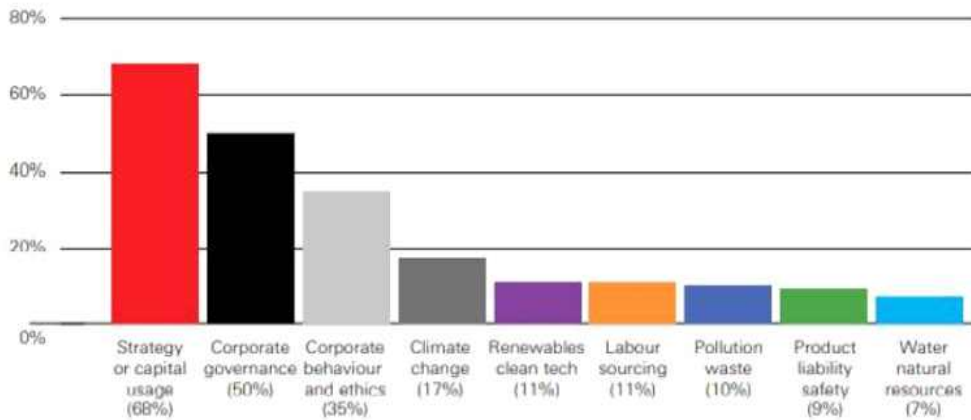
## 2.

본 발제문은 ESG와 관련되어 현재까지 나온 이슈들과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1) ESG 시장의 이슈에서 사회적 임팩트 부문, 대두된 배경, 기존 주주중심의 자본주의 쇠락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대두, 탄소중립 아젠다는 ESG의 주요 관련 사안들이라 사료됩니다. 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이전의 대표적 자본주의인 국가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를 고찰한 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부상하게 된 배경과 흐름을 짚어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의 모니터 역할을 하는 MZ세대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신 부분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파악하는데 좋았습니다. 3) ESG 경영 실천과제에서 발제자께서 투자자, 이해관계자, 평가지표, 환경, 정치적인 다차원적 부분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을 제언해주신 부분도 돋보였습니다. 4) ESG와 진정성 부분은 본 발제문의 주요 키워드인 진성자본주의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ESG 경영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실태와 예측적 내용을 담아 주셨다고 봅니다.

## 3.

본 발제문을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 지점이 생성 되어서 본 토론문에 기술하고자 합니다.

- 1) 우선 ESG 경영의 주요 아젠더 중 하나인 탄소세 와 관련된 논의입니다. 발제문과 토론문의 서두 배경에서도 언급한 전 지구적 환경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탄소배출 문제입니다. 언 듯 보면 탄소배출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는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와 탄소관련 역사문제가 있습니다. 조효제 교수의 <탄소 사회의 종말>을 보면, 자본주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 온 나라는 선진국들로써 역사적 누적치를 따졌을때 미국이 25%, 유럽연합이 22%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배출을 통한 지구온난화의 주요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선진국들이 탄소저감기술력을 확보하고 탄소와 무관한 탈(脫)탄소산업으로 재편한 상태에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일방적으로 ESG 관점의 탄소세 매기기는 정당한가? 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탄소세와 관련된 협정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에서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개도국 기후 변화 대처를 돕기 위해 매년 최소 1천억 달러(약 118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고 탄소감축의무가 강제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ESG를 배경으로 하는 탄소세 문제는 논의될 만하다고 사료됩니다.
- 2)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난관들이 많다고 봅니다.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이해관계자들인 다차원적 지표를 만족시키는 운영체계라 기본적으로 추진할 조직이나 자금 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이 실제적으로 ESG까지 실현한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대기업의 ESG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3) ESG는 토론 서두에서 이야기한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내에서 어떻게 기업은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지향하는 인간중심적 가치와 기업의 활동은 연동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ESG 관점에서의 노동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경영진의 관점에서 ESG의 관심분야는 다음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자료 : 송관철(2021), ESG와 노동. *KLSI*, 148.

즉 자본사용의 전략, 기업 거버넌스, 기업의 행동과 윤리 등에 집중되어 있고 노동에 대한 관심은 노동 공급부분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Work for a bright future)> 보고서를 통해 10대 노동정책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① 평생교육, ② 사람들이 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원, ③ 성평등, ④ 사회보호, ⑤ 보편적 노동보장, ⑥ 노동시간의 유연성, ⑦ 사회적 대화, ⑧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체계, 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지원, ⑩ 실물경제에서 장기적인 책임 있는 투자를 장려하는 기업 인센티브 구조개혁 등으로 ESG와 관련된 사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 ESG 경영은 노동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의 ESG의 가치지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쿠팡이 상장 후 40일 만에 시가총액이 약 13조 정도 하락된 사례는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봅니다. JP모건이 발행한 보고서에서 ‘쿠팡은 한국의 택배노동자 과로 이슈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국내 ESG 경영이 노동의 문제 또한 인간주의적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 4.

본 연구의 대상과 주제는 상당한 연구가치와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론자가 상술(上述)했듯 발제자께서 본 주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꼼꼼히 정리해주셔서 ESG와 관련된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토론자가 논의한 지점들도 ESG 경영과 연계해 고민해 본다면 생산적인 연구물들로 전화(轉化)되리라 기대됩니다. 발제해 주신 탁진규 교수님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 OTT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통해 본 한국 대중문화의 질적 변화

송시형

(국제사이버대학교 엔터테인먼트학과 부교수)

### OTT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통해 본 한국 대중문화의 질적 변화

발표자 : 송시형

소 속 : 국제사이버대학교 엔터테인먼트학과 부교수

#### 차례

- 1 서론
- 2 <오징어 게임>에 대한 예술사회학적 접근
- 3 <오징어 게임>의 작품 분석
- 4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흥행과 파급력
- 5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과 질적 변화
- 6 결론

## 1. 서론

• 지금 현재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수의 OTT 서비스들의 등장으로 미디어 빅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상 미디어 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2020년 초 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그 이전 시기보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영상미디어에 대한 노출과 시청시간이 늘어난 상황이다.

•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한국의 대중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020년엔 K-Pop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BTS의 놀라운 문화 산업적 성과를 시작으로 영화 '기생충'의 주요 해외 영화제 수상은 한국 대중문화의 중요 사건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021년 9월 17일 대표적인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전세계에서 동시 공개 되었던 <오징어 게임>은 총 9부작으로 공개되었다. 그리고 2021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상콘텐츠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작품의 성공이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일회성이라고 하기엔 지금까지의 한국 대중문화의 역량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2. <오징어 게임>에 대한 예술사회학적 접근

- <오징어게임>은 한국 제작 작품 중에서는 많은 자본이 투여된 작품이지만 기존 서구권에서 자본이 많이 투입된 영상콘텐츠에서 흔히 보이는 천편일률적인 해피엔딩이나 현실과 유리된 영웅 서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통해 극단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양극화된 사회 현실 속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동환경, 탈북자, 이주노동자, 빈곤 등의 사회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 2. <오징어 게임>에 대한 예술사회학적 접근

- <오징어 게임>은 이와 같이 서구의 메이저 자본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과 달리 작품의 내러티브가 현실사회와 영상예술가 잘 연결되면서 개인, 사회집단, 사회구조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극의 재미와 긴장도를 높이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 존 듀이(2005)는 예술에 대한 미적 감수성이 현실사회와 개인의 욕구 달성 간의 상호관계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계급간 갈등, 경제 불황, 사회 불안, 삶의 불확실성 등과 같은 현실사회에서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 그리고 현실사회의 이런 양상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술과의 결합을 통한 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학적 미학의 관점은 현대 대중예술에서 필요한 상황이다.

### 3. <오징어 게임>의 작품 분석



#### 1) <오징어 게임>의 작품 개요

- 빛에 쫓기는 456명의 사람들이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뛰어 들게 되고 최후까지 살아 남은 우승자가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 하는 극한의 게임을 치루게 된다.
- 이 과정에서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처지와 냉혹하고 처절한 사회 현실이 결합되면서 끔직한 결과를 각오한 이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 2) 익숙한 장르와 쉬운 게임 룰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 이 작품은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등장한 서바이벌 요소를 이용한 장르적 특성이 나오고 있다.
- 특히 <배틀 로얄>, <헝거 게임>, <메이즈 러너> 등에서 보여주는 서바이벌 장르의 요소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으며, 처절하고 극한 상황에 몰린 인간의 심리를 잘 묘사한 <도박묵시록 카이지>와도 스토리텔링이 유사한 점이 있다.
- 이렇게 익숙한 장르의 스토리텔링과 극 중 등장하는 쉬운 게임 룰은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장치로 작동한다.

### 3) 한국의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주인공들

- 기본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이 작품은 개인적인 사정과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적절히 결합시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여주고 있다.
- 두 주인공인 해적 노동자로 경마에 빠져 살던 성기훈과 서울대를 졸업하고 엘리트로 살아왔던 조상우는 서로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그 외에도 탈북자, 이주노동자, 빈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주인공에 대입시켜 한국의 사회문제와 연결시켜 극도로 경쟁적이고, 신자유주의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지위가 고착된 한국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4.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흥행과 파급력

- 2021년 9월에 공개된 지 17일 만에 1억 1100만 유료 가입 가구가 시청하였으며, 넷플릭스의 모든 콘텐츠를 통틀어 역대 최초 1억 가구 시청 돌파 기록이다.
- 한국 시간으로 2021년 10월 20일에 진행된 넷플릭스의 분기 실적 발표에서 첫 28일 동안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했다고 집계되었다.
-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콘텐츠별 시청 시간을 공개한 홈페이지에 따르면, 첫 28일 동안 약 16억 5000만 시간의 누적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고 집계되었다.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역대 최단기간 최다시청 기록**  
시리즈별 첫 공개후 28일 동안 (최소 2분 스트리밍) 시청 계정 수 집계

순위	넷플릭스 시리즈	시청 계정 수	공개일
1	오징어게임*	1억 1,100만 개	2021년 9월 17일
2	브리저튼: 시즌 1	8,200만 개	2020년 12월 25일
3	퀵: 파트 1	7,600만 개	2021년 1월 8일
4	위쳐: 시즌 1	7,600만 개	2019년 12월 20일
5	섹스/라이프: 시즌 1	6,700만 개	2021년 6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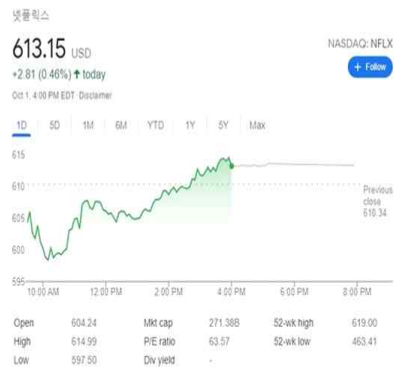
자료/ 미국 대중문화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 'Variety' \* 13일 현재 공개 26일차 연암뉴스



- <오징어 게임>의 파급력으로 넷플릭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신기록을 기록했다.

- 2021년 10월 2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서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사상 최고 히트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 드라마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global phenomenon)' 이 언급했다.

- 작품 관련해서 각종 패러디 밈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를 얻으며, 전 세계적인 문화적 파급력을 이끌어냈고, 작품에 등장하는 트레이닝복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작품에서 진행되었던 게임들이 놀이 문화로 활발하게 발전하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확산되었다.



2021년 10월 1일 마감된 넷플릭스 주가

## 5.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과 질적 변화

- 2019년~2020년에 주목받았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서구 제도권의 문화권력을 쥐고 있는 엘리트들의 관심을 받고 화제가 된 것이지만, <오징어 게임>은 일반 대중이 미디어 자본과 결합하여 만들어 낸 결과라는 점이 중요하다.
- 한국인들이 미처 알지 못했지만, 영상콘텐츠에서 1990년대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으로 부터 사회파 작품들의 흐름은 최근까지 <변호사>, <더 킹>, <내부자들>, <버닝>, <기생충>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코드가 서사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런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이 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 위와 같은 흐름에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의 창작 시스템은 사회 변화에 대한 반응성의 속도가 빠르고 사회 현실을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여 작품에 반영하는 주기가 매우 빠르다는 점은 <오징어 게임>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 한국의 영상콘텐츠들은 많은 경우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이 각각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엮여지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구조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이 스토리텔링의 핵심을 이끌고 있다.
-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인들이 영상콘텐츠 감상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들이 국가나 지역별 콘텐츠 배급의 장벽이 무의미해지면서 한국 영상콘텐츠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과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6. 결론

- 2021년 10월 18일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CSIS Korea Chair Conference on South Korean Soft Power’ 행사에서 조지프 나이 교수는 한국은 대중문화가 소프트 파워를 획득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몇몇 문화권력을 쥐 엘리트 그룹이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라는 거대자본과 결합되어 전 세계적인 반응 불러 일으키고 있다.
- 이 같은 현상은 과거 글로벌OTT 서비스가 없던 시절에는 파편화된 채로 한국 대중문화의 특이성이 주목 받던 시기가 있었으나, 글로벌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뿌려지는 OTT 서비스의 특성에 올라타 현재 한국의 대중문화는 비로소 온전히 그 문화적 역량을 인정 받으며 질적 성장을 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영주(2015). OTT 서비스 확산이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27(1), 75-102. .
- 곽동근(2019). 국내 주요 OTT서비스의 동영상 콘텐츠 제공 및 이용현황 분석, *KISDI Premium Report*, 19(1), 1-36.
- 영화진흥위원회(2021a). 2021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
- \_\_\_\_\_ (2021b). 2020년 10월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
- 유지훈·박주연(2018). 글로벌 OTT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 이용 의도에 미치는 요인 연구. *방송통신연구*, 102, 46-79
- 이성민(2021). 글로벌 OTT 사업자의 콘텐츠 IP 전략과 시사점: 디즈니와 넷플릭스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미디어 이슈&트렌드*, 43, 25-39.
- 지경용 외(2015). 글로벌 콘텐츠사업자 Netflix의 경쟁전략 및 해외 진출 전략. *전자통신동향분석*, 30(6), 1-8
- 함민정·신유진·이상우(2018). OTT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3), 124-137.
- 존 듀이(2005).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재연 역, 책세상.
- CSIS (2021.10.18). Beyond Security: South Korea's Soft Power and the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in a Post-Pandemic World. CSIS Korea Chair Conference on South Korean Soft Power
- Media**
- BBC (2021. 12. 7). Al Horner, "Is Squid Game the dawn of a TV revolution?".
- Independent (2021. 12. 9). Maanya Sachdeva, "Squid Game tops list of 10 most-Googleed shows of 2021".
- NewYorkTime (2021. 10. 11). Mike Hale, "Haven't Watched 'Squid Game'? Here's What You're Not Missing".
- \_\_\_\_\_ (2021. 12. 3). Choe Sang-Hun "From BTS to 'Squid Game': How South Korea Became a Cultural Juggernaut".
- Wall Street Journal (2021. 10. 4). Dasi Yoon & Timothy W. Martin, "Netflix's 'Squid Game' Is the Dystopian Hit No One Wanted—Until Everyone Did".





감사합니다.



[토론문]

## 「OTT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통해 본 한국 대중문화의 질적 변화」에 대한 토론

조민식

(서정대학교 상담아동청소년과 교수)

### 1.

넷플릭스의 인기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대면활동의 축소와 함께 비대면 활동의 확장을 불러왔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활동의 강화로 극장을 찾던 미디어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OTT를 통해 미디어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OTT의 확장은 자연스럽게 넷플릭스의 인기로 이어졌는데 방영되는 영상 콘텐츠마다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짐과 아울러 현지화(localization)를 회사의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 넷플릭스는 한국의 우수한 영상 제작자를 지원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방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국내뿐만이 아닌 넷플릭스 서비스가 시행 중인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에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징어게임> 이전에도 <킹덤>시리즈 같은 경우도 많은 인기를 구가한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적인 콘텐츠가 세계적인 콘텐츠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 라고 불린 한국 대중문화가 주목받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시들해지면서 한때 위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BTS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시작으로 2019년에서 2020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 해외 우수 영화제에서 수상하였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 <지옥>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로 한국 대중문화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국 대중문화 중에서 이 발표문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오징어게임> 같은 영상 콘텐츠들의 내용에는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제작되어 오던 소재나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선 시선이 날카로운 시청자 중에서는 식상하다거나 클리셰로 평가받을만한 요소들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게임〉의 경우도 작품 자체의 오락적 재미와 사회적 메시지가 있지만, 한국의 많은 시청자 중에선 작품 공개 초기에는 엄청 대단한 작품이라는 인식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선 열광적인 지지와 패러디나 밈(meme) 등이 등장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이 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산업적인 성공에 대한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권 영상 콘텐츠들에서 놓치거나 미처 담지 못한 각종 사회 문제들을 지나치지 않고 작품 속 인물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해외의 많은 시청자가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사회와 개인을 연결하여 내러티브에 반영하는 서사구조는 한국 콘텐츠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 발표문의 발전적인 연구의 완성을 위해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작품에 대한 예술사회학적 접근에 대한 부분에서 양극화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짚으면서 존 듀이의 이론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구조와 개인들의 관계를 좀 더 예술사회학적으로 보기 위한 이론적 근거들이 지금보다 더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발표문 분량의 한계로 인한 부분이겠지만 작품 분석에서 각 주인공의 성향이나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들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정리·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5장의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과 질적 변화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시한 관점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논리적인 근거들이 다소 부족해 보이며, 이를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제언을 보완하고 정리한다면 이 연구는 현시점의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제2부 워크숍

---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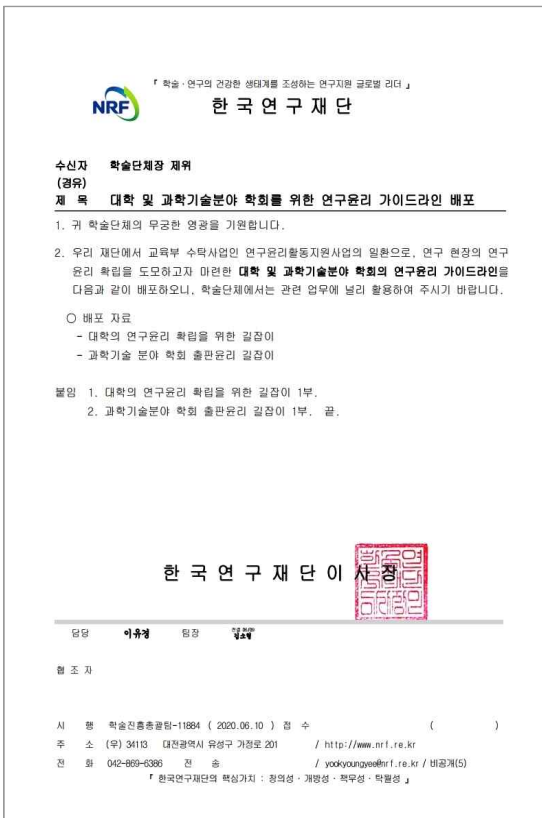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2021.12.17)

ESG 경영과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1)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2021.12.17)

ESG 경영과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2)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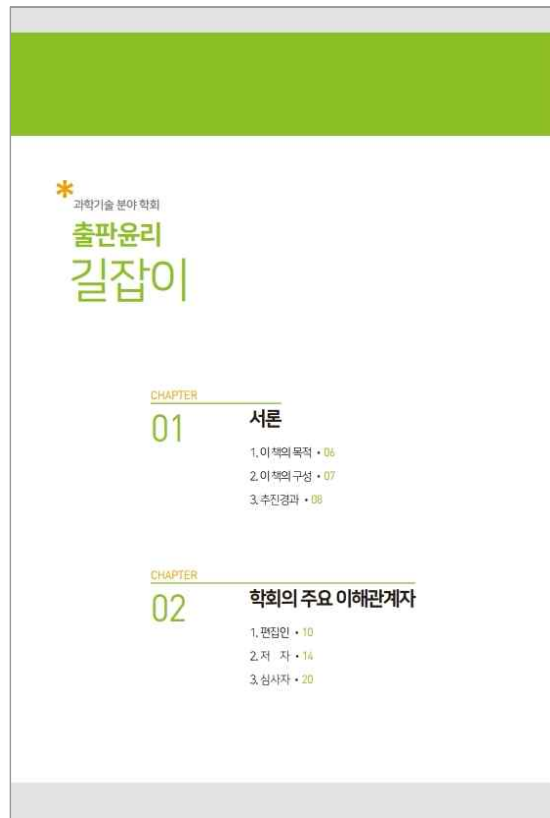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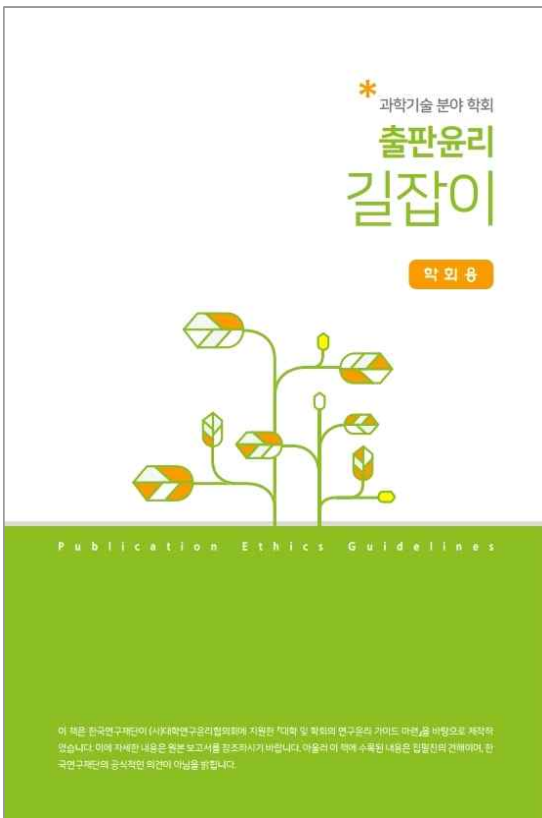
<b>01</b>	<b>CHAPTER</b> <b>머리말</b>	
	1. 이 책의 목적	06
	2. 이 책의 구성	07
<b>02</b>	<b>CHAPTER</b> <b>연구윤리 지침의 목적과 정의</b>	
	1. 지침의 목적 (제1조)	10
	2. 지침의 정의 (제2조)	11
	3. 적용 대상과 방법 (제3조)	16
	4. 지침 적용의 범위 (제4조)	18
<b>03</b>	<b>CHAPTER</b> <b>주체별 역할과 책임</b>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22
	2. 대학의 역할과 책임 (제6조)	24
	3. 자체 규정의 확립 (제9조)	29
<b>04</b>	<b>CHAPTER</b> <b>연구부정행위 정의와 범위</b>	
	1.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제11조)	32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제12조)	33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제13조)	41

<b>05</b>	<b>CHAPTER</b> <b>연구부정행위 판단과 검증</b>	
	1.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제14조, 제15조)	46
	2. 검증주제와 검증기간 (제16조, 제27조)	51
	3. 검증기구 (제21조, 제22조)	57
	4. 검증절차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63
<b>06</b>	<b>CHAPTER</b> <b>연구부정행위 후속 조치</b>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6조)	80
	2. 조사결과와 보고 (제29조)	81
	3.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31조)	84
<b>07</b>	<b>CHAPTER</b> <b>연구윤리 지침의 영속성</b>	
	1. 검증 시효 지침 적용의 시기 구분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90
<b>08</b>	<b>CHAPTER</b> <b>참고문헌</b>	95
	<b>부록</b>	96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2021.12.17)  
 ESG 경영과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3)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2021.12.17)

ESG 경영과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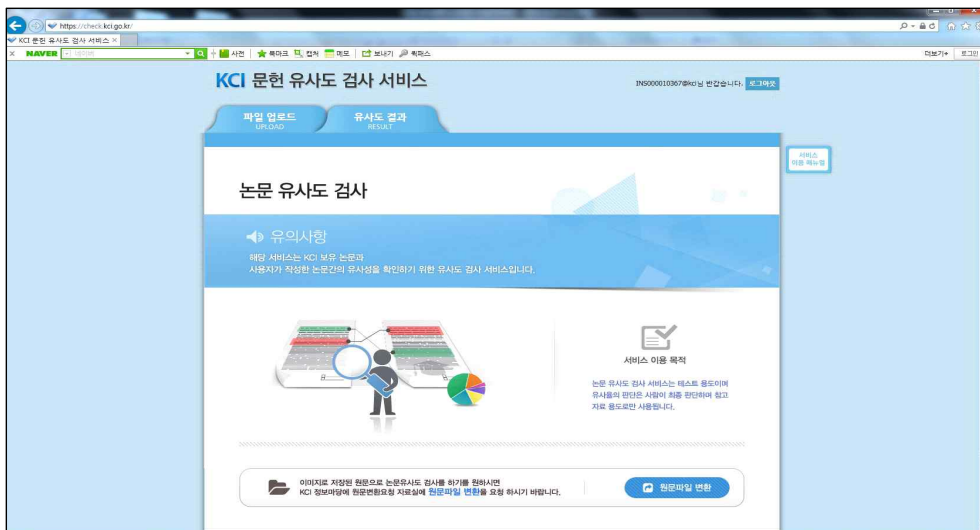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4)

CONTENTS	
CHAPTER	
<b>03</b>	<b>윤리적 학술출판을 위한 권고사항</b>
	1. 동료심사 • 26
	2. 이해상충 • 30
	3. 논문철회 • 32
	4. 저작권 보호 • 36
	5. 우리표명 • 36
	6. 독자통신 • 36
CHAPTER	
<b>04</b>	<b>학회의 연구윤리 검증 관련 권고사항</b>
	1.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예방 • 40
	2.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 • 43
	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후 제재 • 46
	4. 생명윤리 • 48
	5. 연구기관과 학회 간 협력 • 50
CHAPTER	
<b>05</b>	<b>부록</b>
	○○학회의 출판 및 연구 윤리 규정(예시 규정) • 54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2021.12.17)  
 ESG 경영과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1)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2021.12.17)

ESG 경영과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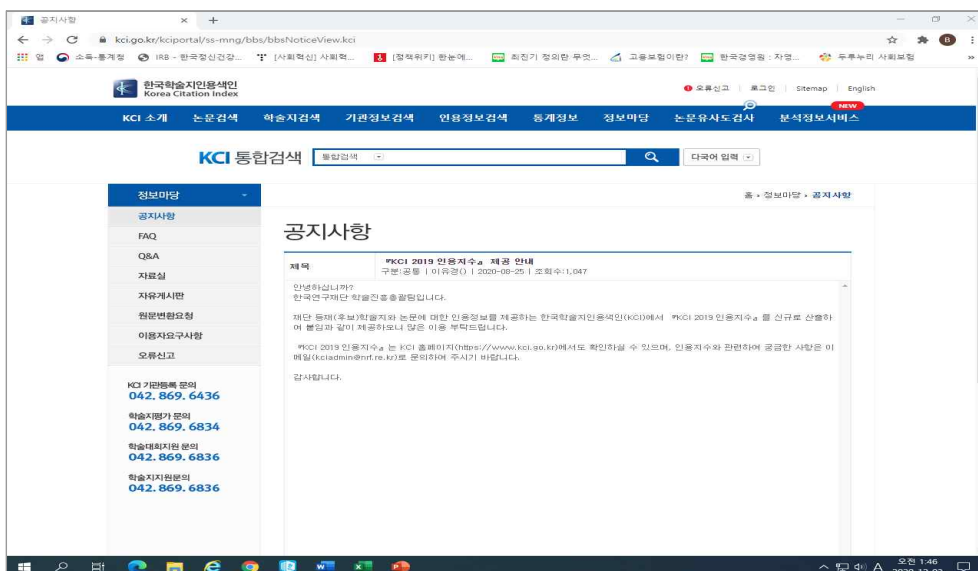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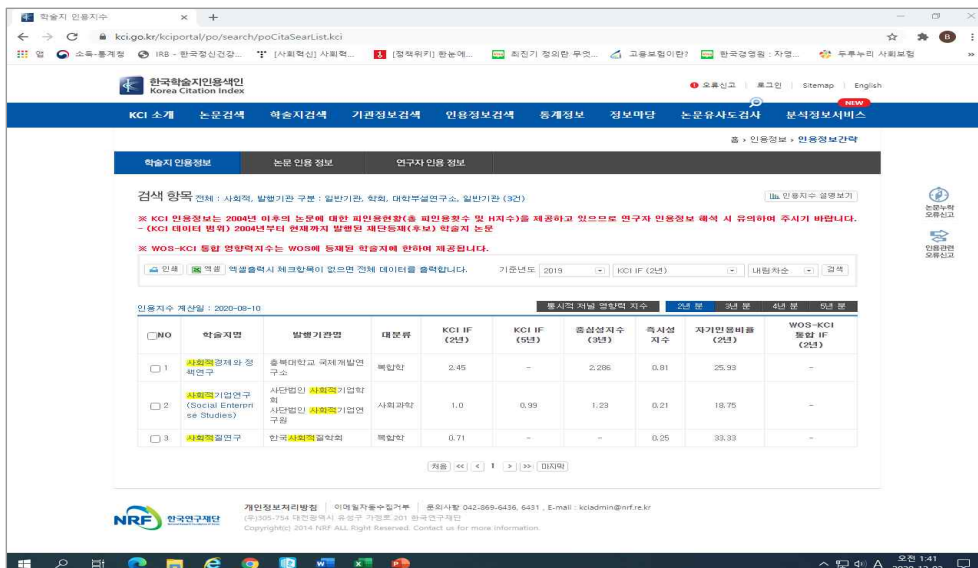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2)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2021.12.17)  
 ESG 경영과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1)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2021.12.17)  
 ESG 경영과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2)

The screenshot shows the KCI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KCI 소개', '논문검색', '학술서명', '기관별정보', '인용정보안내', '통계정보', '정보마당', '논문원서도입서', and '분석정보서비스'. The main search area is titled 'KCI 통합검색' with a search bar and a '다국어 입력' button. Below the search bar, it indicates '인용보고서' for '한국사회적질학회' with 36 items. The interface displays several key metrics: '지자별 논문 수' (a pie chart), 'H-index' (2), '총 인용 횟수' (15), '평균 인용 횟수' (0.4), and '자기 인용 제외 인용 횟수' (9). There are also two line graphs: '연도별 논문 수' (2015-2020) and '연도별 인용 수' (2015-2020). At the bottom, there is a '논문 목록' section with three entries, each with a title, author, and citation count.

## KCI 인용지수 설명

**01.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특정기간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평균 횟수로 동일 분야 저널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

$$\text{영향력 지수 (IF)} = \frac{\text{학술지의 논문이 인용된 총 횟수}}{\text{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

ex) Journal "A"의 IF구하기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들이 2017년에 출판된 논문들에서 인용된 횟수	2015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인용된 수 = 100 2016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인용된 수 = 110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 수	2015년 출판된 논문 수 = 90 2016년 출판된 논문 수 = 95
계산	$\frac{100+110}{90+95} = \frac{210}{185} = 1.135$

**02. KCI +WoS 통합 영향력 지수(KCI+WoS Impact Factor)**

특정기간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국내 KCI와 국외 WoS(Web of Science) 논문에서 인용된 평균 횟수로서, 국내외적 인용도를 통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 (MOS **동재학술지에 한하여 제공**)

$$\text{KCI+WoS 영향력 지수 (IF)} = \frac{(\text{학술지의 논문이 KCI에서 인용된 총 횟수} + \text{WoS에서 인용된 총 횟수}) - (\text{KCI와 WoS 에서 중복하여 인용된 횟수})}{\text{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

ex) Journal "A"의 KCI+WoS IF구하기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들이 2017년에 출판된 KCI 와 WoS 논문들에서 인용된 횟수	2015년, 2016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KCI 에서 인용된 수 = 90 2015년, 2016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WoS 에서 인용된 수 = 30 KCI 논문이면서 동시에 WoS 논문에 중복 인용된 수 = 15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 수	2015년 출판된 논문 수 = 90 2016년 출판된 논문 수 = 95
계산	$\frac{90+30-15}{90+95} = \frac{105}{185} = 0.567$